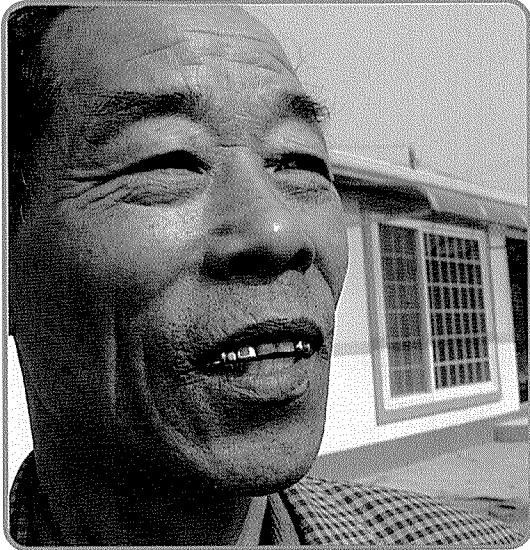




아버지 이어 신선계란 가꾸는  
답띠 청년, 오한성

>>> [ 취재 \_ 이미지 ]

▲ 왼쪽부터 서부사료(주) 김중훈FC, 아버지 오무홍씨, 아들 오한성씨.



▲ 아버지 오무홍(66세)님

**한** 아버지가 있다. 세 살 때 앓은 소아마비로 몸의 왼쪽이 조금 불편한 아버지다. 하지만 그는 40년을 묵묵히 양계업을 하며, 다섯 아들·딸을 키운 투지의 아버지다. 남들이 다 작은 바람 앞에 호들갑을 떨 때도 꿈쩍 않고, 처음 자리한 곳에서 비켜서지 않고, 오래도록 양계장을 지킨 아버지다. 그에게 막내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위로 딸 넷은 무난히 자기 앞가림을 잘 해왔건만, 막내 녀석은 달랐다.

아들은 그랬다. 우선 어릴 적엔 몸이 약해 초등학교 한 학년을 쉬어야 할 지경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좋다는 것은 다해봤다. 덕분에 지금은 무척이나 건강하게 잘 자랐다. 하지만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사춘기를 지나오면 유난한 청소년기를 지나왔다. 아버지는 너무 오냐오냐 키워 그런가 하고, 가끔은 스스로를 나무랐을 것이다.

그런 아들이 지금은 너무나 의젓하게 자라 아버지의 양계업을 이어받아 듬직하게 키우고 있다. 올해로 스물여섯이 되는 닭띠 청년 오한성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물 좋고, 흙이 좋아, 도자기 가마가 많고, 쌀이 맛나며, 복숭아가 잘 된다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장호원에서 양계장을 한다. 아버지가 훨씬 더 일찍 양계를 시작했고, 누구보다 베테랑이지만, 지금은 아들의 양계장이 아버지의 것 보다 훨씬 더 크다.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8,000평 규모의 한성농장에는 지금 최신식 계사 두 동이 자리하고 있으며, 모두 4만5천수의 닭들이 질 좋은 계란생산에 여념이 없다. 산란율 90%를 자랑하는 건강한 농장이다. 한성농장에서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서부사료(주)의 김종훈 FC(Farm Consultant : 농장 컨설턴트)도 “대규모 농장은 아니지만, 알찬 농장”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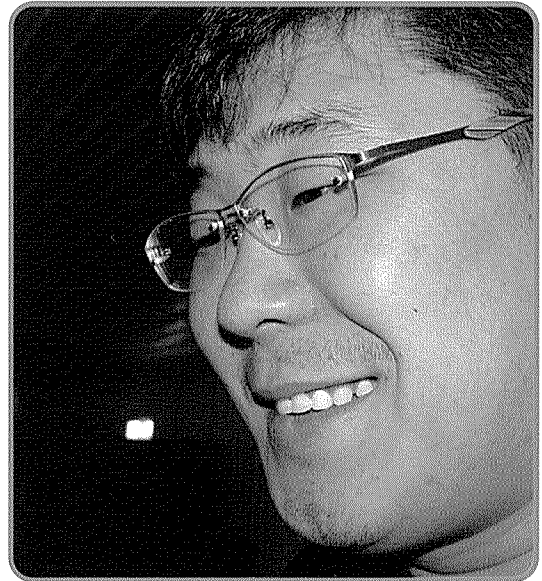
대학입학 무렵, 절대로 양계는 안한다며, 전공도 화공과를 택했던 오한성씨. 어린시절부터 물리도룩 보았던 닭이며, 달걀, 그리고 양계업이 싫었다는 그는 화공과로도 성이 안 차 치대편입 준비도 하고, 취업준비도 하던 중이었다. 그런 그가 돌연 닭을 키우겠다고 나섰으니 아버지도 놀랐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겐 결정적 계기가 있기 마련, 오한성씨에게도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1년간 다녀온 영국 어학연수의 경험이었다. 아버지도 그 연수가 아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1년의 어학연수는 그를 많이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다.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서 사고의 틀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유, 그들의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과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버지는 부침이 심한 때 한 때의 계란값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준히 생산성을 유지하며,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이세요.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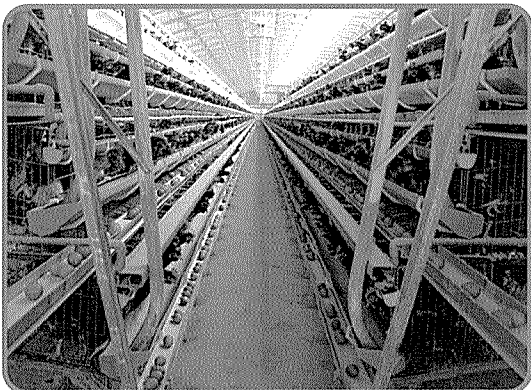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뒤를 잇는 아들에게 꼭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다. **“방역”**과 **“햇빛”**,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신뢰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의 손과 발을 믿으라’는 대목은 반드시 손과 발을 사용하여, 닭장의 환경을 점검하고, 늘 애정을 가지고 닭들을 돌보라는 것이다. 계군관리는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계가



▲ 한성목장 아들 오한성 대표

결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직접 손과 발로 확인을 하라는 것. 그리고 알량한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지는 말라고 했다. 계란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도 영악한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아버지의 이런 양심은 도매상들도 인정한다. 그래서 다른 농가의 계란 값이 30원씩 깎일 때도 아버지의 달걀은 18원 정도 깎이는 것이 고작이다.



▲ 쾌적한 시설의 계사에서 닭들은 햇빛도 유쾌하게 즐긴다.



▲ 깔끔하고, 넓은 집란실.

값이 안 좋을 때도, 아버지의 달걀은 서로 가져가려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배웠으니, 이들의 농장도 아버지의 사양방식을 닮아 있다. 그래서 사료도 아버지가 쓰던 사료를 고수하고 있다. 서부사료(주)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먹는 계란” 출시 등으로 계란 섭취 문화를 바꾸어 갈 뿐 아니라, 계란홍보에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서부사료(주)를 신뢰하는 터에 담당 FC와의 관계도 그들 부자(父子)의 마음에 쏙 들었다. 아직은 ‘오늘먹는계란’을 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한성씨도 그러한 방식의 계란 유통에 대해 아주 호의적이다.

“사실 유통하시는 분들이 농가를 배려하는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이러한 유통구조가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면 농가도 좋을 뿐 아니라 소비자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부사료(주)의 ‘오늘먹는계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부사료(주)의 김종훈 FC 역시 한성농장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서부사료(주)가 주력하는 부분은 ‘최적화 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규모나 시설투자, 그리고 무리한 사양방식은 오히려 농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걀이 식품이라면 양계장은 식품농장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계란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먹는계란’을 공급하

는 농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성농장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켜가고 있고, 서부사료(주)의 시스템에 의거한 계군관리 및 농장 경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닭에 대한 애정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FC와의 좋은 궁합은 어느새 한성농장을 규모 있는 선진농장으로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요? 8만수 정도를 목표로 농장 시설을 완비하고, 질 좋은 계란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농장이 되고 싶어요. 참, 그리고 결혼도 하구 싶어요. 어디 좋은 혼처 있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어지는 호탕한 웃음)”

부지런한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덕분에 또래보다 빨리 안정적인 일을 찾은 오한성씨. 하지만 진짜 미래는 이제 그의 손에서 달렸고, 그 경기는 지금부터다. 어서 좋은 반쪽을 찾아 정상 궤도에 오르길 기원한다. ㉟



▲ 김종훈 FC와 아버지 오무홍씨, 그리고 아들 오한성씨가 농장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